

식민지 조선의 ‘소녀’ 독자와 근대·대중·문학의 동시대성 — 일본 문학과 일본어 잡지 독서 경향을 중심으로

김미지*

1. ‘미숙한’ 또는 ‘불량한’, ‘소녀’들이 호출되는 방식
2. 사이조 야소와 기쿠치 간을 읽는 소녀들 - 가시화된 ‘소녀 독자’
3. 일본 잡지 『少女俱樂部』와 식민지 소녀 독서대중의 위상
4. 결론

국문요약

‘소녀’들의 독서는 ‘여성’들의 독서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독서에 비해서 저급하고 감상적이라는 굴레를 쓰는 경우가 많다. 흔히 ‘여성’ 작가들이나 그들의 작품에 ‘소녀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녀들의 행위와 작업을 폄하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 되곤 한다. 이는 식민지 시기 근대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수혜자)가 된 소녀(또는 여학생)들이 서적 출판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체 여성의 1~2퍼센트의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녀들은 감상적 통속적인 대중문화와 지적이고 고급한 엘리트문화라는 점차 견고해지는 경계선 사이에서 자신들의 독서 취미와 취향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한편 30년대 들어 대중잡지를 비롯한 상업

* 인천대 연구교수

출판 시장의 성장은 정교하게 독자층을 분화시키면서 독자를 늘려나갔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소녀들을 타깃으로 하는 출판 경향도 일본과 조선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 소녀 독자들이 읽는 일본어 작품들(사이조 야소, 기쿠치 간 등)은 이전 시기(1910~20년대)에 담당했던 선구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통속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가치 절하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또 한편으로 소녀 독자들의 증대는 남성과 청년과는 다른 몫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독자 대중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어 문해력을 획득하여 직수입된 일본어 잡지를 읽는 '소녀'들은 성숙한 여성들이 남성들의 세계에 진입하여 겪어야 했던 여러 도전들과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피해 있으면서, 유쾌하게 남성 중심의 문화 특히 엄숙주의, 계몽주의 등을 앞세운 남성 지식인 엘리트주의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소녀 독자, 일본 문예 독서, 사이조 야소(西條八十), 기쿠치 간(菊池寛), 일본어 잡지, 대중 잡지, 소녀 잡지, 소녀구락부)

1. '미숙한' 또는 '불량한', '소녀'들이 호출되는 방식

'소녀(少女)'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이름인가. '여성'이 흔히 연령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한' 성인에게 붙여지는 말임을 감안하면, 이는 여성의 미달 상태 혹은 미달태로서의 존재를 일차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특히 소년이라는 대칭적인 명칭과 한데 결합될 경우,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그 지위가 좀 더 확연해 보인다. 예컨대 '소년소녀 걸작', '소년소녀 세계문학' 등에서처럼 소년과 소녀가 결부될 때 흔히 이는 아동, 어린이

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녀'가 단순히 연령적으로 어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 미숙함이나 저급함의 기표로 쓰이는 장면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해 왔다. 유독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흔히 따라붙곤 했던 '소녀 취향(취미)', '소녀 감성'과 같은 말은 비난이나 폄하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성숙한 남성의 문학과 미성숙한 여성문학이라는 대립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¹⁾ '본격, 정통, 순수' 예술인 남성의 양식에 편입되고자 한다면 '소녀적センチ멘탈리즘은 배척하고 물리쳐야 할 요소가 된다.

사실 '소녀'는 '여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애초에 근대 주체로 호명된 '소년'이나 '청년'과 대비해 볼 때 잉여적인 존재이자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즉 1908년 최남선이 '소년'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근대 주체를 기획하고 불러냈을 때, 그 주체로 호명된 '소년' 안에 '소녀'는 없었다.²⁾ 20년대 본격화된 청년 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래를 담지하는 상징적 주체의 이름'인 '청년'이라는 기호가 '서로 다른 신분, 공동체, 계급, 성별, 출신, 직업 등에 속해 있던 존재들을 하나의 추상적이고 균질한 범주로 호명'³⁾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거기에 다른 '성별'이 끼어들 자리가 있었

1) 근대 문학 초기 주류 남성들은 문단에 진출한 여성 작가들에게 '소녀 문단', '소녀 문학'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철저히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것으로 그들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경계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잦았다. 30년대에 김남천, 김문집 등 주류 비평가들은 서슴지 않고 당대의 여성작가들을 노천명, 강경애, 최정희, 백신애, 이선희 등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소녀 문단'으로 싸잡아 거론하곤 했다.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321~322쪽 참조.

2) 한지희, 『최남선의 '소년' 기획과 '소녀'의 잉여』, 『젠더와 문화』 6권 2호, 2013. 이 논문에서는 '소녀'가 '소년'과 더불어 암묵적으로 상징된 기표이긴 하였으나, 실제로 최남선의 기획이 겨냥한 대상은 '남학생들'이었으며, 여성의 존재성은 텅 비어 있었음을 최남선의 『소년』지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3)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11쪽.

던 걸까. 혹여 남녀가 성별과 무관하게 ‘청년’으로 호명될 수 있었다고 해도, 근대 교육과 함께 남성과 동일하게 ‘여자 청년’(청년 여자)의 목소리가 등장했다고 해도, 새로운 시대의 지식과 감성을 담지한 주체는 언제나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열외에 존재하는 타자이거나 부수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린데다가 청년도 아닌 ‘소녀’의 경우는 연령적으로도 성별적으로도 타자화하여 ‘이중적으로 타자화된 기호’로서 아이러니한 위상을 지니게 된다.⁴⁾ 즉 연령적 취약함으로 인해 성별적으로는 탈성화되고 남성(소년) 주체와는 구별되는 미숙하고 감상적인 존재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주체’인 소년이나 청년과 달리 ‘소녀’라는 말은 여학생, 계집애, 처녀 등과 그다지 변별되지 않는 (어린) 여성에 대한 일개 호칭에 불과하거나, ‘문학 소녀’, ‘불량 소녀’(=모던걸)와 같이 특정한 부류를 지칭할 때 또는 ‘소녀 문단’, ‘소녀(적인) 문학’처럼 여성의 주체적 활동과 여성적인 것을 폄하할 때 주로 쓰이곤 했다.

그렇다면 남성이라는 동일자의 세계에서 배제되고 차별화된 타자 혹은 그 기표로서의 ‘소녀’가 아닌, 근대 교육을 통해 당당히 배움과 읽과 실천의 주체가 된, ‘청년’이나 ‘여성’과는 또 다른 문화 생산 혹은 향유의 주체로서의 ‘소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있다면 소년-청년-남성과 그들의 담론에 의해 끊임없이 배제되거나 추방되는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였는가. 이 논문은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근대 문학의 장면들 속에서 ‘소녀들’이 가진 가능성과 힘(걸 파워)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그간 집중적 조명의 대상이 되어 왔던 몇몇 선구적인 여성들(신여성)의 삶과 작품을 통해 자

4)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97집, 2007, 270쪽. 박숙자는 이 논문에서 근대에 ‘소년’과 짝패가 되어 쓰이게 된 ‘소녀’라는 기표가 주체-타자의 패러다임 안에서 구성되는 과정을 ‘탈성화’와 ‘감상성’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다.

각한 근대적 주체의 모습을 그려내는 방법보다는, 모호하고 뒤틀리고 종잡기 어려운 하나의 대중적인 집단이자 형성의 움직임과 과정 속에 존재했던 소녀들의 문화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물론 당대 소녀들 자신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당대의 각종 자료들과 작품들이 주로 남성들에 의해 쓰이고 가공되었다는 점 때문에 소녀 독자들의 실체를 그려내기에는 실제적인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녀 독자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업보다는 당대의 자료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녀들이 독서 문화의 장 안에서 담당했던 위상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길을 택하고자 한다.

'소녀'라는 집단을 특정하여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위의 한지희, 박숙자의 논의 이외에 거의 없지만, 근대 교육과 문화 생산에서 자신들의 몫을 담당하게 담당할 '여성 주체'에 집중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근래에는 '여학생' 독자에 대한 연구들도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옥란⁵⁾은 여학생의 근대 주체로서의 성격과 그녀들의 독서 체험을 재구성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근대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여학생의 형성과 학교 체험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하면서 당대의 일부 설문조사와 독후감을 분석하여 알려진 것과 달리 여학생들이 연애물이나 통속물보다는 사상·교양서를 더 선호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의 독서가 가진 역동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보다 남성 중심의 동일자의 문화에 여학생들을 편입시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엄미옥⁶⁾은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학생'의 표상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근대소설 형성의 계기로서 여학생이라는 제재 혹은 모티브를 고찰하고 있다. 천정환은 교육을 통해 문해력을 획득한 여학생(연령상 '소녀'층과

5)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 『상허학보』 13, 2004

6) 엄미옥, 「한국 근대 여학생 담론과 그 소설적 재현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6

거의 등치될 수 있는) 독자들을 독자층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1%에 불과하지만 배운 여성들이 가진, 소비문화 특히 독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언급한 바 있다⁷⁾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처럼 입수 가능한 제한적 데이터를 통해 그녀들이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나 하는 것을 분석하거나 근대 소설 작품들 안에 폭넓게 편재하는 '소녀 표상'을 고찰하는 대신, 당대의 문화 지형 안에서 그들의 독자로서의 위상을 가늠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독자'로서의 '소녀'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선 1920~30년대는 영화가 그 자리를 빼앗기 전까지 책과 문학이야말로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중심이자 최전선이었다는 점 때문이고 또한 '소녀'라는 존재의 모호성으로 인해 문화의 다양한 맥락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대의 자료들과 소설들을 통해 '소녀들의' 독서에 개입된 당대 문학 장의 역할 관계를 추론해 보고 '소녀들을 위한' 서적 및 독서 시장의 시대적 논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작품과 일본어 잡지에 대한 그녀들의 애호와 취향이 말해주는 것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소녀와 여학생의 독서를 언급하는 기존의 연구들 안에서도, 일본 대중문화의 상당한 소비층으로 알려진 소녀들(여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대한 논의가 그리 충분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 청년, 어린이와는 다른 지점에서 존재하지만 명백히 근대 교육의 수혜자로서 문식력을 갖추고 독서(문화)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취향과 이상을 그려나갔던 '소녀'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식민지 시기 문학 독자와 대중문화에 관한 새로운 주석을 달 수 있기를 기대한다.⁸⁾

7)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8) 덧붙일 것은, 최근에 '소년소녀 문학'을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본고의 관심이나 관점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2. 사이조 야소와 기쿠치 간을 읽는 소녀들 - 가시화된 '소녀 독자'

'소녀'와 '문학'을 결부시킬 때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문학소녀'의 이미지일 것이다. 그런데 '문학청년'의 함의나 이미지와 달리 '문학소녀'의 경우는 매우 한정적으로만 논의되고 회자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문학소녀의 창작이나 독서는 서정, 감상과(만) 결부되거나 연애물, 연애편지와 연관되는 것이다. 1920년대부터 '문학소녀의 센터멘탈리즘'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을 자주 목격할 수 있거니와,⁹⁾ 소녀들이 읽는 책들이라고 해봐야 사이조 야소(西條八十)의 소녀시(少女詩)나 기쿠치 간(菊池寛) 류의 연애소설에 불과하고 그녀들이 쓰는 글은 '센터멘탈한 문장(문구)'일 뿐이라는 식이다. 물론 소녀시절의 독서경험 가운데 감상적이고 로맨틱한 연애소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터인데,¹⁰⁾ 연애물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에는 청년들이나 남학생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과연 연애서한집으로 대히트를 친 노자영의 『사랑의 불꽃』, 일본과 조선 양국에서 '국지왕국'이라 불릴 만큼 대중소설가로 이름을 떨친 기쿠치 간의 『진주부인』을 읽은 독자는 여성이 압도적이었을까? 시인 이상이 고등공업학교 재학시절 소년소녀시, 서정시의 대명사인 사이조 야소나 일본 대중소설의 신기원을 연 기쿠치 간을 즐겨 읽었다는 증언에서 보듯,¹¹⁾ 서정과 통속

9) 염상섭의 『사랑과 죄』, 이익상의 『대필연서』 등 '문학소녀'라는 기표가 등장하는 글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센터멘탈'이라는 수식어가 동반된다.

10) 소녀를 주 타깃으로 한 로맨스 서적류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실제로 여학생, 소녀들 가운데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독서시장에서 하나의 '사실'에 해당한다.

11) 경성 고공 시절에 그는 1인치가 넘는 두꺼운 노트에 일본어 시를 빼곡이 써 두었으며, 사이조 야소나 기쿠치 간을 즐겨 읽었는데, 이윽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나 마키노 신이치로 대상이 변해 갔다고 한다. (사예구사 도시카쓰, 『이상의 모더니즘』, 『사예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를북, 2000, 325~326쪽.)

또는 ‘센티멘탈리즘’이 여성 특히 소녀의 전유물만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예컨대 이익상의 『대필연서』(『동아일보』, 1927, 12 연재)라는 소설은 소품이긴 하지만 ‘소녀의 센티멘탈리즘’이라는 도식을 뒤집는 반전을 보여준다. 신문사 학예면을 담당하는 ‘나’는 어느 여고 졸업생의 연애편지 공세에 “문학소녀의 ‘센티멘탈’한문구에 용이하게넘어갈시대는 벌써지 내었다”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거둬드는 그녀의 편지에 점차 빠져들게 된다. 처음에는 “문학에 동경을가지고 ‘센치멘탈’한 분위기에서 헤매이는 처녀”로 치부하던 것이 결국 “이러한 달콤한문구가 어느곳을 놓으면 이러케면면히내려쓰다지는지 알수업”다며 감탄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편지가 그녀가 쓴 것이 아닌, 그녀를 흠모하는 제3의 인물인 어느 준수한 청년에 의해 씌어진 것임이 밝혀진다.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연애편지까지 대신 써주면서 질투조차 느끼지 않는 청년을 보고 ‘나는 새로운 세대의 연애법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이 맺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감상과 서정이 소녀 독자들만의 취향도 아니고 여성 독자의 수가 남성의 그것에 결코 비할 바가 못 될진대, 그녀들의 독서는 유독 주목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20년대를 풍미했던 연애의 시대, 낭만의 시대가 1930년대 상업문화의 득세 속에서 통속화함에 따라 감상, 서정, 로맨스물이 미숙한 여성(소녀 또는 여학생)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기술되면서 감상적-미숙함-여성/이성적-성숙함-남성이라는 도식에 따른 독자 문화의 젠더화가 고착되어 온 것이다.¹²⁾ 그렇다면 사실상 폄하나 가치절하의 대상이었던 소녀들의 독자취향이 왜 관심의

12) ‘소녀의 감상성’이라는 명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담론화 되는지에 대해서는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97집, 2007 참조.

대상 또는 문제가 되었던 걸까? 그것을 언급하고 환기시킴으로써 지식인 고급 독자(작자)인 남성은 취향의 구별짓기가 용이해지며 또한 계몽자(계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 역시 견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다.¹³⁾ 그러나 또 한편으로 소녀들의 취향은 설혹 주류 지식인 남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폄하의 대상이 될지언정 표면적으로는 비난받지 않는 '암묵적 승인' 또는 판단 유보의 징후 또한 등장했다. 흡사한 상황이 등장하는 유진오와 박태원의 두 소설을 보자.

(가) (...) 뿐만아니라 그도 역시 식골 녀학생에 만히 보는 『문학소녀』의 한사람인 듯 하였다. 각금각금 『국지관』인듯 『서조팔십』인듯 『도기등촌』인듯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나는 그날밤에는 우선 소녀가 숭배하고 있는 이들 문인을 소녀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시인하는 수 밖에 없었다.

(...) 『사다꼬』는 아즉도 그때 세상을 놀래인 암살당한 모씨를 숭배하는 한편 『서조팔십』의 시를 애송하고 있는 것이었다.¹⁴⁾

(나) 내가 그의 곁을 떠나기에 미처 누이는
‘오빠야!’

하고 은근히 부른 다음 ‘기꾸찌깡’의 〈미라이까(未來花)〉라는 소설을 한 권만 사줄 수 없느냐고 의향을 물었다. (...)

나는 누이에게 그러한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의 소설 같은 것을 읽어

13) 당대에 많이 회자되었던 ‘불량소녀(소년) 문제’의 대개는 저급한 독서취향과 강하게 결부되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들의 독서 교육이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십지미정한 어린 사람들이 문학답지아니한 연문학류의 서적에 중독되는 것도 큰 문제”(박팔양, 『어린이들의 문학열을 장려하는 것이 가할가(설문조사)』, 『동아일보』, 1927. 11. 06)라거나 “감상적 문학서류에 중독되어 불량하게 되는”(『어떠한 가명에서 불량소년소녀가 생기게 되느냐?』, 『동아일보』, 1928. 04. 11) 일이 많다고 걱정을 하는 한편, 두 번의 실연 끝에 음독자살을 기도한 어떤 소녀의 사건 기사에는 그녀가 ‘문학소녀’였다는 점이 거듭 강조가 되기도 한다.(『뜻사랑에 상처받고 음독한 문학소녀』, 『동아일보』 1936. 1. 19 ; 『연애를 순례하든 문학소녀의 애사』, 『매일신보』, 1936. 1. 19)

14) 유진오, 『귀향』, 『별건곤』 제28호, 1930. 5

주기를 청하고 또 후에 단행본이라도 발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부를 진정하
마고 일러주었다.

내가 앞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누이는 또다시

‘오빠야!’

하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나의 소설이 얼마나 흥미 없는 것인가를 일일이 실례를 들어 아
켜 주고 그러한 소설을 쓰느니보다는 소녀시를 지어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충
고하여 주었다.

만약 나로서 마음만 있다면 누이는 조금도 아낌 없이 그의 서가에서 ‘사이조
야소(서조팔십)’의 시집을 꺼내 주마고 그뿐 아니라

‘또 쇼조시노 쓰꾸리다가(소녀시 짓는 법)라는 책두 내게 있수.’

이렇게 누이는 친절하였다.

나는 누이의 후의에 감사하고 이제 잘 좀 생각하여 보마고 약속하였다.¹⁵⁾

(밑줄은 인용자)

(가)에 인용된 유진오의 소설 『귀향』에서도 (나)에 인용된 박태원의
소설 『누이』에서도 하나같이 소녀(문학소녀)들은 ‘국지관菊池寬’, ‘서조
팔십西條八十’의 소설과 시를 애독하는데, 남성 서술자들은 이들 취향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모호한 태도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이들
문인을 숭배하는 소녀의 생각을 ‘시인하는 수밖에 없었다거나 오빠(박
태원)의 소설은 재미가 없으니 차라리 소녀시를 쓰라는 누이의 말에 ‘잘
좀 생각하여 보마고 답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17세 문학청년 시절
사이조 야소의 애독자로 그를 흉내내어 ‘서정소곡’을 쓰기도 했다고 고
백한 바 있는 박태원은¹⁶⁾ 이후 ‘그러한 것’과 결별하면서 모더니스트의

15) 박태원, 『누이』, 『신가정』, 1933. 8

16) 박태원,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1998. 박태원의 동경 유학시절을 고찰한
강소영은 이때 박태원이 읽은 사이조 야소의 시집을 『파리소곡집』으로 추정하면서,
박태원의 일본 유학과 문학의 방향성 수립에 사이조 야소가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하
고 있다. (강소영, 『박태원의 일본 유학 배경』, 『구보학보』 6, 2010, 20~21쪽 참조)

길로 나아가지만, 소녀들을 포함한 당대 문학 대중들의 취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¹⁷⁾ 이는 문해력을 갖춘 소녀 군의 독자로서의 급성장과 문학 및 서적 시장에서 이들의 지위 변화를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¹⁸⁾

사실 사이조 야소의 경우 조선에서는 '소녀들이나 읽는' 감상적인 서정시 작가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아동자유시형 운동을 주창하여 근대 동요 및 어린이 표현운동의 시조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1918년에 그가 아동잡지 『붉은 새』에 발표한 '카나리아는 일본 최초의 동요(근대적 의미의)로 불리는데, 이 시기 일본에서의 아동운동은 대역사전(1910)이후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교육칙어'와 수신교육이 옥죄고 있던 교육현장에 반발하여 등장한 혁신적인 표현주의 운동으로 다이쇼시대 가장 창조적인 운동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⁹⁾ 한국의 시인들 특히 아동시나 동요 작자들의 형성과 성장에 이러한 운동과 일본의 시인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²⁰⁾ 그러니

17) 이와 유사한 태도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등장한다. 독견의 소설에 대해 명작 운운하는 친구 앞에서 그는 '간신히 그것이 좋은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박태원의 성격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소위 독세한 당대 대중문학에 대한 유보적 태도라고 읽을 수 있다.

18) 이는 처음에 여성의 영화관 출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영화가 근대적 취미 생활로 완전히 승인된 1930년대부터 약화되거나 희석되는 현상과도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노지승, 『식민지 시기, 여성 관객의 영화 체험과 영화적 전통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40, 2010) 즉 대중주의 시대, 대중예술 시대의 도래와 문화의 상업주의화는 그 '대중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 마쓰오카 세이고, 이연숙 역, 『만들어진 나라 일본』, 프로네시스, 2008, 408~409쪽. 이에 따르면 당시 사회주의에 눈을 떴으나 표현 통로를 찾지 못했던 청년 시인 역시 아동 표현 운동을 내세운 새로운 잡지들에 마음을 움직여 어린이 잡지 『붉은 새』를 주도했다고 한다.

20) '예술 동요 운동'을 시작한 스즈키 미에키치는 순수 아동문학 잡지 『붉은 새』(1918)를 창간했고 그 휘하에 기타하라 하쿠슈, 사이조 야소, 노구치 우조 등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동요를 썼다. 조선의 시인들이 사이조 야소의 동요를 즐겨 읽었다는 박목월

까 위의 유진오와 박태원의 1930년대 초 소설에 언급된 사이조 야소와 1910~20년대 일본 아동문학의 시조로서 조선 근대시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이조 야소와는 이미 일정한 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격차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조선에서도 1910~20년대 초부터 일찍이 아동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어린이』 등 아동대상 잡지 또한 20년대 내내 꾸준히 발간되었지만, 본격적인 아동 독자층의 분화와 연령별로 타깃을 달리하는 출판문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년대 조선에서, ‘소녀시’의 독자 또한 아동이나 청년 시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여학생을 비롯한 새로이 유입된 대중 독자층에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이상도, 박목월도, 박태원도 애독했던 사이조 야소의 지위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30년대에 들면서 소년기나 문학청년 시절을 벗어나 문단 내에 확고히 진입하기 시작한 이들 작가들이 과거와 결별하면서 벌어진 시차(視差)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신파극이 처음 등장했던 당시에는 새로운 예술운동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이후 ‘교양없는 독자층’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저급한 것으로 매도되기 시작한 것과 유사한 사태라 할 수 있다.²¹⁾ 물론 여기에는 사이조 야소 등 유명 시인들이 ‘소녀’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불러내기 시작한 상업출판 문화에 편승하여 ‘소녀시집’ 시리즈와 ‘(소녀)문학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출판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20년대에는 아동 독자의 분화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년대와

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지용, 박목월, 김소운, 이원수 등 조선의 시인들은 이들 동요시 운동의 큰 영향을 받았고 일본 시인들과 깊은 유대를 맺었다고 한다. (박지영, 『1920년대 근대 창작동요의 발흥과 장르 정착 과정』,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 표상』, 상허학회, 깊은샘, 2006, 238-9쪽.)

21)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푸른 역사, 2003

30년대 조선에서 씌어진 '소녀소설'의 존재양상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소녀소설' 역시 활발하지는 않지만 20년대와 30년대에 간간히 신문연재 소설로 그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운』(微笑 작, 『매일신보』, 1924), 『어엿쁜 희생』(마춘서 작, 『매일신보』, 1927), 『순희의 설움』(이정호, 『동아일보』, 1935), 『월사금』(박흥민, 『동아일보』, 1938) 등이 '소녀소설'이라는 명칭을 달고 연재되었는데, 역시 그 작가들은 잡지 『신흥영화』, 극단 〈조선예술좌〉 등 연극영화계의 주역인 마춘서 등 남성들이었다. '소녀시집'시리즈로 일본과 조선을 호령했던 사이조 야소나 '소녀 독자'를 몰고 다닌 기쿠치 간 또는 지속적으로 '소녀 형상'을 작품에 등장시킨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이 이들 작가들의 모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나 연봉 1만원, 원고지 1매에 40원이라는 엄청난 원고료로 조선에서도 떠들썩했던(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국지관(기쿠치 간)과 겨룰 수 있는 조선의 작가는 춘원 이광수가 유일했다.²²⁾

당시에 소년소녀현상문에 등 어린 연령층을 새로운 창작주체로 발굴하는 움직임과 함께 '소녀시'나 '소녀소설'의 창작주체로서의 소녀가 없지는 않았으나 미미했고, 사실상 '소녀'를 앞세운 저들 기획은 '소녀 작가'보다는 '소녀 독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러한 '소녀소설'들은 20년대와 30년대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20년대에 쓰인 『행운』과 『어엿쁜 희생』에 등장하는 '소녀'는 결코 아동이라고 볼 수 없는 여고보 여학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거나 뜨거운 첫사랑에 번민하는 처녀 쪽에 가깝다. 반면 30년대에 쓰인 『순희의 설움』, 『월사금』의 경우에는 북간도로 떠난 아

22) 실제로 당대에 춘원은 스테디셀러 『무정』과 장편소설의 연이은 히트로 조선 제일의 '대중작가'로 불리며 '조선의 국지관'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는데, 이 역시 30년대 상업주의 출판문화가 낳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버지를 그리워하거나, 월사금을 내지 못해 걱정하는 소학교 학생으로 그 주인공이 설정되어 있다.²³⁾ 이는 30년대 들어 독서 시장 내에서 독자층 및 독자 타겟의 분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30년대에 소년소녀가 ‘아동’으로 좀 더 분명하게 연령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아동문학’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며(아동문학론 재론)²⁴⁾ ‘아동문학전집’이 출간된 것도 그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20년대 이후 30년대는 교육받은 여성 독자층이 점차 가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²⁶⁾ ‘소녀’들의 독자로서의 잠재성이 주목을 받은 시기로, 지식인-남성 위주 고급독자와 구별되는 편하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연령별, 남녀별로 대중을 분절화 하는 상업주의 출판 마케팅에 의해 새로운 독자의 영역으로 계발되어 점차 존재감을 획득하게 된다. 단, 20년대 이래 꾸준히 분절화한 독자로 성장한 ‘소녀’들은 아동과 여성에 두루

23) 30년대의 ‘소녀소설’은 당시 아동문학의 문체인 ‘습니다’, ‘어요’의 경어체 어미를 사용하는 점에서도 20년대와 확연히 구별된다.

24) 『아동문학에 관하여 - 이현구씨의 소론을 읽고』, 『중앙일보』, 1931-12-20 ; 『아동문학의 문제(1)~(3) - 특히 창작동화에 대하여』, 『조선중앙일보』 1934-05-17 ; 『兒童文學과 理論缺如(偵察機)』, 『동아일보』, 1935-07-28 ; 『아동문학 復興論, 아동문학의 르네상스를 위하여(1)』, 『조선중앙일보』, 1936-01-01 ; 송창일, 『童話文學과 作家제1회』, 55회, 『동아일보』, 1939-10-17

25) 일본에서도 이미 1920년대 전후 아동 표현 운동(동요, 동화)이 등장하지만, ‘대중 아동 문학’ 시대가 열린 것은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 소년 잡지와 아동 전집 등 소년 독서물들이 등장하면서 부터로 본다. (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 현대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98, 44~45쪽)

26) 1920년대 중반 보통학교(초등)의 여자 입학생 수는 6만여 명 그리고 중등 이상의 여학생 수는 학교당 이삼백 명 안팎으로 전국적으로 삼천 명 정도였으며, 그 가운데 경기(경성) 지방과 평북(평양) 지방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전선(全鮮) 여학생 총수와 그 출생도별』, 『신여성』, 1925.1). 1934년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생 수가 5,123명가량으로 집계되었다(『신가정』, 1934. 4). 10년 세월 동안 중등 정도의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걸쳐 있는 존재로서 때로는 아동으로 호명되어 아동문학의 독자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 성인독자에 가깝게 접근하기도 하는 등 좀 더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된다. 독서 문화와 출판 시장에서 소녀(소년) 독자의 무한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이란 이러한 점에서 발견되었던 것일 터이다. 앞서 박태원의 『누이』에서 보았듯 조선의 지식인 남성 작가 앞에서 일본 작가 사이조 야소와 기쿠치 간의 애독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내세우는 식민지 소녀들의 등장은 남과 여, 조선어와 일본어,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쯤은 가뿐히 초월한 새로운(문제적인) 대중의 탄생을 보여준다. “소설을 보더라도 소위 연애소설 따위 그것도 극히 안가한(安價, 값싼) 국지관 등 소설 몇 권을 읽는 데 불과하고 명작을 심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²⁷⁾는 지식인 남성의 우려에서 보듯 연애소설이나 시집, 잡지 등은 제대로 된 '독서행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일본 잡지 『少女俱樂部』와 식민지 소녀 독서대중의 위상

근대적 매스미디어가 성립하려면 '아동과 여성과 민중'이라는 새로운 계급으로서의 서적 소비자가 출현해야 하는데,²⁸⁾ 일본에서나 조선에서나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근대적인 교육(교육의 근대화)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대중으로 편입된 소년과 소녀들의 문학은 매스미디어가 된 대중문학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²⁹⁾ 실제

27) 이현구, 『현대여학생과 독서』, 『신여성』, 1933.10

28)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212쪽.

29) 일본에서 '대중소설'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24년경인데, 이 무렵부터 밀리언셀러 잡지(『킹』을 정점으로 하는)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상업주의 출판 전쟁이 시작되

로 ‘소녀’를 내세운 마케팅은 조선에서도 2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년대 초 애초에 아동운동의 일환으로 소학생 정도 나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년소녀’가 호명되며 ‘소년잡지’ 붐이 일기도 하는데,³⁰⁾ 20년대 말부터는 아예 ‘소녀잡지’, ‘소녀소설’ 등의 표제가 등장하여 그 독자 타겟이나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 신문지면에 발행 준비를 알리는 기사가 실린 소녀잡지로 『장미』, 『로-쓰』(앞의 『장미』와 동일한 것인지는 미확인), 『봉선화』 등이 있는데 실제로 발간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발행 주체는 대부분 소년잡지에 이미 관여를 해왔던 남성들이 명시되어 있다.³¹⁾

20~30년대 간간히 명맥을 이어온 이들 조선의 ‘소녀잡지’, ‘소녀소설’은 미완에 그치거나 하나의 장르명칭이 되기에는 사실 그 성과나 반응이 불확실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찍이 일본에서 시작된 상업출판의 대중 분절화와 그에 따른 타겟 출판이 미미하나마 한국에서도 시도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기획되거나 그 실행 주체가 성장하기 이전에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한 채 금세 소멸한 것은, 30년대 이후 급팽창한 일본발 상업주의 서적 잡지들이 조선의 독서 시장을 지배하게 된 사실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

고 소년문학이 대중문학에 포함되면서 대중문학은 진정한 국민문학이 된다. 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 현대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98, 49쪽

- 30) 1925년 소년소녀신문 『소년주보』, 『소년소녀문단』 등이 발행될 예정이라는 신문 기사를 비롯, 1927년에는 ‘소년잡지의 전성시대’라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다.(『소년문학운동 可否, 어린이들의 문학열을 장려하는 것이 가할가』, 『동아일보』, 1927. 4. 30)
- 31) 『장미』의 경우 “김택효, 조영, 김홍순, 백옥석 외 제씨의 발기로 장미사를 창립하여 소녀잡지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동아일보』, 1927. 1. 30) 『로-쓰』의 발간 예고기사는 『동아일보』, 1927. 6. 25에서 확인된다. 『봉선화』의 경우는 “소년운동에 힘쓰던 리종만 씨 외 수씨의 발기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다(『동아일보』, 1930. 6. 15).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는데,³²⁾ 위에 인용한 박태원의 『누이』에서 '누이'가 본정 서점에서 "슈후노토모(『主婦之友』)"를 사 읽고 현상문제를 풀었다는(오빠인 '나'가 대신 풀었지만) 대목이 나오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1930년대 초부터 대중 독자와 상업 출판의 만남은 조선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대중주의와 국민주의로 요약되는 일본 쇼와 문화를 대표하는 밀리언셀러 대중잡지 『킹』이 창간된 것은 이미 1925년이었지만 조선에서 이 잡지가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고,³³⁾ 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조선 독서시장은 전세계로 수출되던 이 잡지의 '최대의 外地 시장'이 된다.³⁴⁾ 이는 비단 『킹』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30년대 후반 식민지의 소설들은 일본어 잡지가 일상의 풍경, 인물의 심리, 신체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양상을 드러내며 조선에서 일본어 잡지가 압도적인 위세로 일상을 잠식한 장면들을 펼쳐 보인다.³⁵⁾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적으로 조선의 소녀들은 일

32) 일본어 문식력을 갖춘 대중독자의 성장과 함께 조선에서 일본어 서적의 대규모 유통이 이루어지고 특히 그 중심에 상업주의 잡지가 있었다는 점은 천정환, 『일제말기의 독서문화와 근대적 대중독자의 재구성(1) - 일본어 책 읽기와 여성독자의 확장』, 『현대문학의 연구』 40, 2010에서 지적된 바 있다.

33) 1935년 서적시장을 조사한 기사에 따르면 '소년독물' 시장을 일본어 잡지가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은 서점에 들어오면 으레히 玄海灘을 건너 온 그림책들을 뒤지는 현상으로 이 방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너무 적은 듯하다. 그런 관계로 해서 少年讀物이나 幼年讀物類는 모다, 남의 손으로 된 것이 잘 팔리는 현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キング』, 『主婦之友』, 『講談俱樂部』 등의 月刊雜誌가 잘 팔린다고"(『서적시장조사기(한도,이문,박문,영창등 書市에 나타난)』, 『삼천리』 7권 9호 1935. 10. 01) 한편 1934년 신문기사에는 일본 잡지 『킹』 현상문제 당선으로 얻은 축음기를 무산아동 교육을 위해 기증한 여교원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懸賞으로얻은 蓄音器寄贈』, 『동아일보』, 1934. 12. 12)

34) 조선, 만주, 대만 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佐藤卓己(사토 타쿠미), 『『キング』의時代 -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40쪽에 따르면 1930년대 말부터 조선으로부터 독자투고가 증가했고, 1937년 이 잡지가 시행한 '독자를 위한 현상모집'에서 당선자 지역별 명수에 있어 조선이 일본의 웬만한 도시를 넘어섰다고 한다.

본 소녀잡지 시장의 독자층으로 대거 편입되는데 그 중심에 고단사(講談社)에서 발행한 『소녀구락부』가 있었다.

소녀들 역시 처음에는 조선과 일본의 여성잡지(또는 주부잡지)의 독자층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들은 조선의 『신여성』, 『여성』, 『신가정』 또는 일본의 『주부지우』, 『부인구락부』 등의 독자들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령과 성별을 섬세하게 분절화한 대중잡지의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여성지와 아동지의 독자에 폭넓게 걸쳐 있는 소녀층이야말로 새로이 개척할 만한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킹』이라고 하는 모든 연령과 성별에 침투한 ‘궁극의 대중잡지’가 결국 잡지 시장을 평정하기는 했지만, 『소녀구락부』, 『소녀의 벗』, 『소녀 세계』, 『소녀 화보』 등 소녀에 특화된 대중잡지들은 타깃 독자층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독자층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가 부재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일례로 1940년 『여성』지가 실시한 좌담회 ‘제복의 아가씨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한 참석자는 “『부인공론』, 『부인구락부』, 『주부지우』 이러한 종류의 것을 보기도하죠. 조선것으로는 여학생에 대한 것이 없어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³⁶⁾ 당

35) 1939년작인 유진오의 단편소설 『가을』에서 주인공인 소설가 기호가 현실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두통을 잊기 위해 아침부터 『주부지우』를 펼쳐 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나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부인화보』를 집어 들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여급 프로라가 등장한다. 박태원의 장편소설 『여인성장』(1941)에서도 여주인공 숙자는 어지러운 심사를 잊고자 『부인공론』을 꺼내어 뒤적거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물론 “어떠한 기사도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는 안었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 작품들에서 이 장면들의 기능은 손을 뺐으면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편재하는 일제 말기 일본어 잡지의 일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6) 『여성』 5권 7호, 1940. 7. 일본에서는 『소녀계』라는 잡지가 이미 1902년에 등장한 이래로 소녀잡지가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고, 이들 지면에 실린 소설, 만화, 화보 등이 일본의 100년 소녀문화(소녀백)를 형성한 기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의 여성 잡지들은 사실상 여학생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과 평론 중심의 잡지 문화에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잡지의 논설들은 대부분 가르침과 훈계 그리고 비판이 주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조선의 출판계는 특화된 콘텐츠를 요구하는 분화된 독자층의 요구를 맞추지 못했거나 맞추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들이 일본어 잡지 독자로 급속히 흡수된 것과 관련해 더 중요한 사실은 근대 교육 및 식민지 교육을 받은 식민지의 소녀들이 일본어(국어)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1908년 조선교육령에서 밝힌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육 목적은 “여생도의 신체발달과 부덕 함양에 유의하되 덕목을 베풀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며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케 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국어에 숙달케 하는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외국어 학습이 보통 그러하듯 학교에서 배운 일본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바깥’의 일본어 서적(문예, 잡지)을 읽고 이를 통해 더욱 숙달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 터이다.

사실 『소녀구락부』를 발행한 일본의 잡지왕국 고단샤(講談社)는 잡지 광고로 ‘일년에 백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신문사에 주고 있는³⁷⁾ 거대 상업잡지 출판사로, 고급잡지/저급잡지라는 구분에 따르면 고단샤의 『킹』과 ‘구락부 잡지’들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곤 했다. 이는 소위 정론지라 할 수 있는 『개조』, 『중앙공론』 또는 소위 ‘고급 지향의’ 대중잡지 『히노데(日の出)』 등과의 대비에서 그러하며, ‘이와나미(岩波) 문

37) 광복산, 『일본잡지계전망』, 『동아일보』, 1934. 2. 9 이 글에 따르면 개조와 중앙공론 역시 그만큼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다.

화'라는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독서 문화의 대척점에서 있는 것으로 흔히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단샤의 잡지들은 심심풀이 오락잡지로서의 비속함과 다양한 계층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공공성이라는 이중전략을 취함으로써(적어도 일본에서는) 최대한의 독자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사립문부성'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대중의 국민화를 표방한 고단샤의 잡지 전략은 성별도 연령도 계층도 지역도 다른 '국민'을 공공적으로 동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³⁸⁾ 1923년 창간된 『소녀구락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의 소녀에게도 '장래 교양있는 부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가 되도록' '국민성의 계발과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한편, 소녀잡지에는 이전에 없었던 강담물을 연재하여 인기를 끌기도 했던 것이다.³⁹⁾ 한마디로, 『소녀구락부』는 잡지문화의 자본주의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인잡지의 '데빠-또'(백화점)적인 성격⁴⁰⁾을 이어받으면서, 그 전신인 소년잡지 『소년구락부』가 내세웠던 국민성의 계발이라는 대의명분도 가져오므로 강력한 대중 흡인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녀구락부』라는 잡지가 식민지 소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소녀구락부』는 20만부의 발행부수로 다른 소녀잡지에 비할 때 압도적인 부

38) 『킹』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중 독자층의 확대를 佐藤卓己는 '대중적인 세론과 조직적이고 새로운 공공공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キング』の時代 -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41쪽.

39) 佐藤卓己, 『『キング』の時代 -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138-9쪽 참조. 고단샤를 잡지 왕국으로 만든 노마 세이지는 『소녀구락부』에 21개조에 이르도록 자세하게 편집 방침을 작성하여, 여학생들은 종이 질보다는 흰색을 선호하니 주의하라든지, 투서자의 서신을 이용하여 독자와의 호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하는 세목을 정해 놓았다고 한다.

40) "부인잡지는 대백화점의 부속물로서, 그 자신이 소규모의 데빠-또에 다름아니다." (靑野季吉, 『동경조일신문』, 1933. 6, 위의 책 28쪽에서 재인용)

수를 자랑했는데,⁴¹⁾ 발행부수만으로 실제적인 영향력이나 구체적인 관련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회고담'들은 『소녀구락부』 또는 『소년구락부』를 대명사로 하는 일본의 소녀잡지가 실제로 조선 소녀들의 소녀 시절을 상당 부분 점령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 나는 기숙사 도서관에서 『소녀 구락부』, 『소녀의 友』 같은 소녀 잡지를 빌려 읽고 펴이나 서정적인 기분을 즐길 수 있었는데 금량리와 동생들에게 그 책에서 읽은 슬프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강냉이를 먹으면서 해 주었다.⁴²⁾

(나) 초등학교 1, 2학년 생이던 나를 끌어당긴 관심사는 남기 오빠 방에 있던 작은 책장이었다. 우리집 응접실 책장 안에는 아버지가 보시던 금박표지의 <세계문학전집>같은 책이 가득 있었으나 미처 내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남기 오빠의 책상에 꽂힌 어린이용 단행본이나 『소년 구락부』나 『소녀 구락부』같은 학생용 일본어 잡지는 나에게 독서의 길로 통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다.⁴³⁾

첫 번째 (가) 인용문의 필자인 화가 천경자는 1924년생으로 그녀가 『소녀구락부』, 『소녀의 벗』 등 일본어 소녀잡지들을 읽은 것은 30년대 말, 1940년 전후로 추정된다. 특히 소학생 시절(1940년 전후) 이 잡지를 접한 (나) 인용문의 필자는 “『소년 구락부』나 『소녀 구락부』같은 학생용

41)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 잡지의 현황과 부수 등에 대해서는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부록 참조. 한편, 1940년에 『삼천리』에서 공개한 일본 잡지의 실제 발행 부수에 따르면 『킹』과 『주부지우』가 60만부로 수위를 차지하고, 『부인구락부』와 『소년구락부』가 각각 50만, 『소녀구락부』가 20만으로 講談社の '구락부 잡지'가 잡지계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론』, 『개조』가 4~5만부인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차이이고, 『소녀구락부』의 경우도 다른 소녀 잡지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부수라고 할 수 있다. (『삼천리 기밀실 - 동경 서적 시장 현황』, 『삼천리』 12권 3호, 1940. 3)

42)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83쪽

43) 오경자, 『불우물』(수필집), 범우사, 1997, 221쪽

일본어 잡지는 나에게 독서의 길로 통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어 특징적인데, 이는 ‘문자를 이해하는 무지대중의 알팍한 취미 오락물’ 정도로 치부하는 일부의 인식과는 달리 이러한 소녀잡지들이 새로운 단계의 독서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그 새로운 독서의 세계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는 좀 더 세심한 고찰을 요하는 문제일 수 있으나 세계문학전집 대신 소녀잡지를 선택한 그 자체가 폄하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식민지에서도 이들 잡지가 일본에서와 동일하게 ‘국민화의 미디어’였다고는 하나, 일본과 조선에서 이 잡지를 읽는 독자들의 독서 효과와 성장 과정은 과연 동일했을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식민지 소녀의 독서 체험에서 조선의 어떤 잡지나 작품들도 따라잡을 수 없었던(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어 대중 잡지들이 그녀들의 성장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소녀들이 그러한 독서 체험을 통해 새로이 진입한 책임기의 세계란 어떤 것이었을까. 현재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상업주의 저널리즘이 개척해 낸 새로운 ‘식민지’인 대중 독자가 단지 지배당하고 길들여지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후 일본의 지식인 佐藤忠男이 주장하듯 누군가는 『소년구락부』와 같은 대중잡지를 통해서도 ‘지적 성장’을 이루어내고,⁴⁴⁾ 또 어떤 이들은 역으로 고급종합잡지의 독자였다가 나중에 『킹』의 세계로 빠져드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거대한 자본

44) 佐藤忠男, 『소년의 이상주의』, 『사상의 과학』, 1959. 3. (위의 책, 61쪽에서 재인용)
 佐藤忠男은 이 글에서 『소년구락부』의 많은 열혈 독자들이 이후 강담물 독자로 흡수되지 않고 암파문고의 독자(지식인)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소년 시대 특유의 이상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キング』の時代』의 저자 佐藤卓己는 고급종합잡지를 졸업하고 나온 『킹』의 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대중잡지야말로 암파적 시민문화가 옮겨질 수 없었던 광대한 계층을 국민적 공공권으로 조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을 앞세운 상업출판의 독세와 그들의 출판시장 지배는 소위 '고급잡지'의 몰락을 야기했고 광대한 계층을 대중잡지의 독자층으로 조직해 나아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⁴⁵⁾ 그러나 광범위한 학생 지식인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킹』이 기존에 대중문화와 엘리트문화를 단절적으로 인식하고 대립시키는 오랜 도식을 뒤흔들었던 것처럼,⁴⁶⁾ 자신들의 입을거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대중독자들의 역동성과 비일관성은 '여성-저급한 대중 / 남자-고급 교양 시민'으로 가르는 오랜 구별짓기의 논리 역시 흔들어 놓는다.

“부인의 독서욕의 증대는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광대한 신식민지의 발견”⁴⁷⁾과 같다는 당대 일본 저널리스트의 말에서 보듯 제국 일본에서도 여성(의 영역)은 공공연하게 '식민지'라는 기표로 상상되고, 이는 대중잡지라는 백화점의 온갖 상품을 진열하고 팔아넘기기에 더없이 좋은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되었다. 제국의 '소녀'들 역시 그 식민지의 일부를 이루면서 출판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성이라는 상품시장을 미래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잠재적인 가능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식민지 조선의 소녀들은 어떠한가? 30년대부터 일제 말기에 이를수록 자본주의 출판 저널리즘에 의해 제국의 신민들과 식민지인들은 그 격차를 점차 좁혀 나가며 표면적으로는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도

45) 이미 30년대 중반에 “광고전에 끼어서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잡지는 일조일석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하고(곽복산, 『일본잡지계전망』, 『동아일보』, 1934. 2. 9), 1920년대 후반에는 고급부인잡지를 지향하여 나왔던 『여성개조』, 『여성일본인』, 『여성』 등은 추락하고 『부인공론』도 고백기사 위주로 대중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佐藤卓己, 『『キング』의時代 -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32쪽)

46) 『킹』을 읽는 학생군의 존재(물론 『킹』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독자로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는 '고단사문화와 이와나미문화'라는 기존의 도식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정합한 존재였다고 본다. (佐藤卓己, 『『キング』의時代 -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61쪽)

47) 大宅壯一, 『문단갈드의 해체기』, 1926 (위의 책 31쪽에서 재인용)

연령도 계층도 지역도 다른 '국민'이 동일한 독물을 동시에 읽는 미증유의 경험⁴⁸⁾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식민지인들에게 이 동시대예의 참여란 주체적인 지적성장의 가능성과 국민으로서 공공 영역예의 편입 모두를 의미하는 양면성으로 인해 2등 국민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동시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제국의 신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일제 말 남성 지식인들도 그러했듯이 조선의 지식인 여성들은 총동원체제와 강제 동원 문제 등 일제의 군국주의에 관해 일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수의 친일파가 아니라 지식인 다수의 '친일행위'가 시작된 진원은 그들이 국민으로서의 공공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 여성들이 제국의 2등 신민인 일본의 여성들에 동조하여 황민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했다는 점⁴⁹⁾에 비춰 보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소위 '식민지의 식민지'(조선 여성)의 예비군으로서 '소녀'들은 일제 말기 식민지의 성인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모종의 입장 표명을 유보할 수 있는 자유(여유) 속에서 그 동시대성을 체험했다. 앞에서 인용했던 두 여성의 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순수한 읽기 행위'로서의 일본어 잡지 독서라는 회고가 가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성에 다 어리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어쩌면 제국주의적 시선에서 가장 열등한 존재이자 자동으로 배제되는 타자였지만, 식민지의 '소녀'들은 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큰 자의식 없이 자신들의 순전한 읽기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키고 계발시켜 나아갔다. 남과 여, 성인과 어린이, 조선어와 일본어, 제국과 식민지 등 여러 구획과 경계들을 재조정하도록 틈새를 만들고

48) 佐藤卓己, 『『キング』の時代 -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41쪽

49)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443쪽 참조.

뒤흔들었던 새로운 종류의 대중으로서 식민지 시기 '소녀' 독자는 그 의의가 있다.

4. 결론

본고는 식민지 시기 독서 문화 가운데에서 '소녀'들의 독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과 당대의 작품들 그리고 회고 등을 통해, 어린이에서 여성 사이에 걸쳐 있는 '소녀'들의 독서 경향과 그 의의를 짚어 보았다. 지금까지 '여성' 독자에 주목한 연구들은 당대의 독서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1차 자료들 즉 통계, 설문, 좌담 등을 분석하여 독서와 관련된 그녀들의 선택, 취향 등의 문제를 해명해 왔다. 본고는 이외는 방향을 좀 달리 하여 '여성'이라는 기표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소녀' 독자의 존재를 당대에 쓰인 소설이나 평문 등을 통해 그 밑그림을 그려 보았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소녀들의 독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작품 속에서 찾고, 이를 크게 일본(어) 통속 문학과 대중 잡지라는 키워드로 설명해보고자 했다. 즉 사이조 야소나 기쿠치 간과 같이 일본과 조선을 뒤흔들었던 대중시, 대중소설 그리고 상업출판의 선봉을 달리던 대중잡지 등에 탐닉했던 그 시대 소녀들의 독서의 맥락과 배경 그리고 그 의의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소녀'들의 독서는 '여성'의 독서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그것에 비해서 저급하고 감상적이라는 굴레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연애물이나 서정시 또는 통속물의 흥행에 여성들 특히 소녀 독자 군이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크지만 실상 이를 전적으로 소녀 독자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애의 시대'라고까지 불리는 20년대는 남녀 할 것 없이

연애열로 들끓었던 시기였으며 상업출판의 시대였던 30년대에 대중잡지 시장의 어마어마한 성장은 정교하게 독자층을 분화시키면서 독자를 늘려나갔다. 그런데 여성 특히 '미숙한' 소녀들의 독서가 주목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타자로서 배척하고 견제함으로써 성별 대결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 엘리트주의 문화를 증명함과 동시에 출판문화 내에서 소수이지만 강력했던 그녀들의 위상을 반영한다. 무시할 수 없는 신혼 독자층으로서 남성과 청년과는 다른 몫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독자 대중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상업 출판 시장에서 그녀들이 구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마케팅 대상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소녀들의 독서가 실제로 그녀들의 삶과 성장에서 갖는 의미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식민지 시기 근대 교육을 받고 활자의 세계에 진입한 그녀들은 문화 행위(독서)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줄 알았던 첫 번째 여성 세대일 것이다. 특히 '소녀'들은 성숙한 여성들이 남성들의 세계에 진입하여 겪어야 했던 여러 도전들과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피해 있으면서 유쾌하게 남성 중심의 문화 특히 엄숙주의, 계몽주의 등을 앞세운 남성 지식인 엘리트주의에 흠집을 내는 존재들이었다. 본고는 몇 겹의 타자로서 기호화되며 미숙함과 감상성의 기표로서 호명됐던 '소녀'를 너머 그리고 상업주의 출판 마케팅의 새로운 식민지로서의 '소녀'를 너머, 교육받은 새로운 대중적 주체로서 독서의 세계와 시장에 진입한 '소녀'의 여러 맥락을 짚어 보고자 했다. 소녀들의 '쓰기'를 포함해 '소녀' 주체의 위상과 정체 그리고 동시대 주체-타자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태원, 『누이』, 『신가정』, 1933. 8
_____,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1998
유진오, 『귀향』, 『별건곤』 제28호, 1930. 5
이익상, 『대필연서』, 『동아일보』, 1927. 12
동아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별건곤, 여성, 신여성, 신가정, 삼천리, 少女俱樂部

2. 논문 및 단행본

- 강소영, 『박태원의 일본 유학 배경』, 『구보학보』 6, 2010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 『상허학보』 13, 2004
노지승, 『식민지 시기, 여성 관객의 영화 체험과 영화적 전통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40, 2010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97집, 2007
박지영, 『1920년대 근대 창작동요의 발흥과 장르 정착 과정』,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깊은샘, 2006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엄미옥, 『한국 근대 여학생 담론과 그 소설적 재현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6
오경자, 『불우물』, 범우사, 1997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_____, 『일제말기의 독서문화와 근대적 대중독자의 재구성(1) -일본어 책 읽기와 여성독자의 확장』, 『현대문학의 연구』 40, 2010
한지희, 『최남선의 '소년' 기획과 '소녀'의 잉여』, 『젠더와 문화』 6권 2호, 2013

마쓰오카 세이고, 이연숙 역, 『만들어진 나라 일본』, 프로네시스, 2008
사에구사 도시카쓰, 『이상의 모더니즘』,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들북, 2000

-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 현대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98
佐藤卓己, 『『キング』の時代 - 國民大衆雑誌の公共性』, 岩波書店, 2002

Abstract

Girl readers and contemporaneity of popular literature in the colonial era
: Focussing on reading trend of Japanese literary works and popular magazines

Kim, Mi-Ji (In-cheon University)

Reading of girl's and girl readers are often estimated to be of an inferior and sentimental sorts rather than that of men's and youth readers. And women writers' works are also low-estimated by the rhetoric of 'girlish' and 'girlish taste'. In Korea girls of modern times in the early 20th century gradually emerged from obscurity to the surface in the reader's culture and market, as they were educated in the public schools and learned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and Japanese. Although they were very small group, only 1~2 percent of total population of Korean women, they played more and more important roles in reading book market at that time. Girl readers of colonial Korea slid in to the gap between high class reading culture (elite readers) and low quality reading culture (sentimental popular readers) and they developed their own reading tastes and reading trends. Especially they were enthusiastic for reading Japanese popular literary works so as to poems of Saijo Yaso, novels of Gikuchi Gan and Japanese pop magazines for women and girls such as <Friend of wives>, <Girl's club>. Simultaneously the huge commercialized publishing industry from Japan in the 1930's absorbed newly emerged girl readers rapidly also in Korea. It was certain that girls were important targets for the publishing industry, but they existed in between children and adults, men and women, elite culture and popular culture, therefore they had rather freely developed their tastes for books and reading and made cracks in the main stream elite culture and crashed border lines of popular low-class culture and elite high-class culture.

(Key words: girl readers, reading Japanese literature, Saijo Yaso(西條八十), Gikuchi Gan(菊池寛), Japanese magazine, popular magazine, girl's magazine, <girl's club少女俱樂部>)

Ⅰ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